

# 군산시, 조선해양 신시장 선점 나서

###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추진 저탄소·무탄소 연료 추진시스템 성능 검증 기반 마련

군산시가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조선·해양 분야 미래 신시장 선점에 나선다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실증센터 전경

이번 사업을 기반으로 암모니아 크래커(암모니아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 기반 수소 생산 실증사업까지 연계해, 친환경선박 산업과 수소경제 전환을 동시에 이끌 계획이다.

2022년부터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에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올해까지 국비 100억원을 포함한 총 170억원을 투입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실증센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저탄소·무탄소 대체연료 기반 추진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육상 실증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선박 전환이 가

연료 공급 기술 등 시험평가 기반이 구축되며, 대체연료 엔진 핵심 부품 실증 지원체계까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4년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실증센터가 준공되고 1MW급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저탄소 연료 저장·공급 시스템, 3MW급 혼합연료 증속엔진 등 핵심 평가 장비가 단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특히 암모니아 저장·공급 설비는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등과 협력해 국내 최초로 대규모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해 모빌리티용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실증까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산시는 하반기부터 시운전 및 통합시험 운영을 통해 기업 맞춤형 시험평가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에 실제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급하고, 실증 기반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 선박 기자재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 군산시 항만해양과, 해양에너지관광 대상 수상

### '오션팔레트' 기반 차별화된 해양문화 정책으로 전국적 우수성 입증

군산시 항만해양과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6 해양에너지관광 박람회'에서 '해양에너지관광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 해양관광 정책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개막식에 권은경 교통항만수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해양수산부, (사)도시재생사업진흥회, 연합뉴스TV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해양에너지관광·홍보마케팅·커뮤니케이션·아이디어 공모전·우수 서포터즈 등 5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16개 기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 중 해양에너지관광 부문은 전국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총 9점(지자체 6, 민간 3)이 선정됐으며, 군산시는 '해양문화 확대'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는 해양에너지체험 복합단지인 '오션팔레트' 조성을 기반으로 한 해양에너지관광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응모하였으며, 체험형·교육형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형 콘텐츠를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항만해양과는 오션팔레트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해양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이번 평가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적(운영성) △지역민·관광객 참여 및 향유 기회(확대성) △시설 및 서비스 인프라 활용도(구축성) △홍보·교육 활동 실적(교육성)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심사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창의성·적정성·성과 등을 엄격히 심의했으며, 종합점수 8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해 시상이 진행됐다. 군산시는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해양문화 확산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군산=김만호 기자

## 익산시, 시청 열어 판로 막힌 농가 돕는다

### 3일부터 시청 1층서 매주 금요일 '로컬푸드 상생 직거래 장터' 운영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 운영 중단에 따른 농가 판로 지원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정상 운영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시청사의 문을 활짝 연다

익산시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시청 1층에서 '로컬푸드 상생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장터에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 농가가 참여해 우수한 품질의 제철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등 30여 품목을 선보인다.

시는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계약 종료와 기존 운영 주체의 무단 점유 사태로 인해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장터 정기 운영은 지난 임시 운영을 통해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확대를 통해 농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대표위원 송영자 의원 등 7명 위촉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익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경진 의장은 대표위원인 송영자 의원을 비롯해 맹진용(세무사), 김경호(前 농협 근무), 김시영,

김진성, 박선식, 이범용(이상 前 공무원)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이달 21일 까지 20일간 실시되며, 위원들은 행정·재무·회계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예산, 기금 등 익산시 재정 전반을 점검하게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형 일자리 기업에 공동 마케팅 지원 나서

### 익산시, 14개 협력사 공동마케팅 지원... 700만 원 상당 패키지 제공 NS홈쇼핑 노출·홍보 등 특급 혜택... 신규 고용 창출 건인 '기대'

익산시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인 '전북 익산형 일자리' 협력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대대적인 공동마케팅 지원에 나선다

시는 '2026년 전북 익산형 일자리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선정 14개 참여 기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로 선정된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본 사업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년간 구축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식품 기업들이 '하림' 계열사인 국내 유통기업 (주)에스소피(NS홈쇼핑)의 인프라를 활용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핵

심이다. 지역 기업들이 공동마케팅을 통해 전국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매출을 끌어올리고, 고용 창출로까지 이어지는 '익산형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기업들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추진 의지, 기업 역량, 상품군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신규 고용 창출 의지와 사업 참여 경험 등을 비중 있게 다뤄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를 살폈다.

그린로트(자두공차), 라리스팜(두부), 모닝팩(서티레) 등 익산의 우수

한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향후 총 40명 이상의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기업당 700만 원 상당의 NS쇼핑 홍보·판촉 패키지(CRM) 메시지 △앱 푸시 △장문 문자메시지 발송 △익산형 일자리 전용 브랜드관 운영 △모바일 앱 메인 팝업 노출 △대형 유통망 입점 기회 제공 등이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에도 12개 협력 기업에 총 9,800만 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 분석 결과 참여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이 약 3억 원을 기록했으며, NS홈쇼핑 마케팅 이후 판로 확대 및 제품 문의가 잇따르는 등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2026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본격 추진

### 총사업비 49억원 · 재생에너지 설비 250개소 지원

군산시가 2026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48억 원 규모로,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최우수로 선정되며 국비 14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 1월 28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지난해 선정된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치할 구비서류 안내 및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안내는 융복합지원사업 컨소시엄 대표사인 주식회사 세원이엔에스(063-452-6167)를 통해 진행된다

올해 보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207개소(1,388kW), 태양열 16개소(224㎡), 지열 27개소(472.8kW)로, 사업 완료 시 연간 약 2,300MWh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약 70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하며,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는 연간 733T0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산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2027년 융복합지원사업 수요공고'에 따라,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받게 된다.

상세일정은 군산시청 신재생에너지과(063-454-442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제3기 시민참여위원회 활동 마무리

군산시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시민참여위원회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제3기 활동 성과 정리와 함께 새로운 시민참여 방식인 '시민참여협의체'로의 전환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군산시 시민참여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대표, 전문가, 시의원, 간부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자문·심의 기구로,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 시민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활동 기간 중 발굴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시민참여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 군산시, 2026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군산시가 2일 2026년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김명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민선제 전문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행정 목적을 상실한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1건과 공공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3건이 포함되었다.

사용료 조정 안건은 시설 이용 여건과 운영 실태, 공익적 기능 등을 반영해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기준과 적용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관계 법령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으며, 특히 재산 활용의 적정성과 이용 형평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과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 익산시, 탐천·익산천 안전하게 정비 추진

익산시가 탐천(월하지구)과 익산천(창평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우기철 침수 예방과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사업은 2029년까지 진행되며, 탐천에 776억원, 익산천에 482억원 등 총 1,258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기양천(황등지구) 정비사업도 순조롭다. 익산시는 지난 1월부터 토지 보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며, 현재 약 28.8%의 보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방문 협의의 계약을 추진해 상반기 내 보상을 5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3월 통합 건설사업관리 운영 업체 선정에 마쳤으며 오는 5월에는 탐천, 7월에는 익산천이 차례로 공사에 착공한다. 시는 시공사 선정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재해예방 국가예산 확보중앙부처 총력 대응

### 군산시, 2027년 신규사업 4건 · 총 1546억원 규모 건의 등

군산시가 상습 침수피해 해소와 급경사지 붕괴 예방을 위해 중앙부처를 잇달아 방문하며,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성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 2개 부처 5개 관련 부서를 씬 없이 방문하는 바빠본 투여를 감행하며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시 관계자들은 중앙부처 실무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 국가 안전망 구축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먼저 3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방문해 경포천을 대상으로 한 '특정 도시하천 시범사업' 선정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심지역의 침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하천 중심의 종합 방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4월 1일에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2027년도 재해예방 신규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미룡지구·어청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초촌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원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총사업비 1,546억원 규모로 군산시는 이 가운데 국비 773억원 확보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특히 상습 침수 지역과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도시 전반의 재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군산=김만호 기자